**현대자동차 기업분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완성차 제조업체로, 공정거래법상 현대자동차그룹에 속하였으며 현대자동차 그룹에는 동사를 포함한 국내 53개 계열회사가 있음.

연결 종속회사는 차량할부금융 및 결제대행업무 등의 금융업을 운영하는 현대캐피탈과 현대카드, 철도차량 제작 및 판매업의 현대로템,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의 현대케피코 등으로 구성.

2017년 1~4월 한국시장에서는 전년동기비 0.7% 증가한 16만 2천대를 판매하여 43.4%의 시장점유율(수입차제외)을 차지하였으며 그랜저의 신차효과를 필두로 전체판매량이 소폭 증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하여 i40 살룬, 아판떼 쿠페, 투싼ix 가솔린 모델 등 차종별 파생 모델을 출시하고, 디젤 라인업을 확대하였으며, 중대형 인기 차종 및 고성능 4개 차종의 가격을 인하하는 정책을 실시.

매출구성은 차량부문 76.3%, 금융부문 17.5%, 기타부문 6.2% 등으로 구성.

**경영철학 및 비전**

창의적 사고와 끝없는 도전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함으로써 인류 사회의 꿈을 실현한다.

비전 2020 : 자동차에서 삶의 동반자로  
- 인간중심적이고 환경친화적인 혁신 기술과 포괄적 서비스를 기반으로 최상의 이동성을 구현하여 삶을 더욱 편리하고 즐겁게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 제공.

**핵심가치**

고객 최우선 :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가치의 중심에 고객을 최우선으로 두는 고객 감동의 기업문화 조성.

소통과 협력 : 타부문 및 협력사에 대한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나눔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창출한다.

도전적 실행 :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며 ‘할 수 있다’는 열정과 창의적 사고로 반드시 목표를 달성한다.

인재 존중 : 우리 조직의 미래가 각 구성원들의 마음가짐과 역량에 달려 있음을 믿고 자기계발에 힘쓰며, 인재존중의 기업문화를 만들어 간다.

글로벌 지향 : 문화와 관행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최고를 지향하고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 존경 받는 개인과 조직이 된다.

**사업영역 및 현황**

핵심 사업인 완성차 부문을 중심으로 자동차부품, 철강, 건설 등의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으며, 할부리스, 신용카드 등 여신전문금융업을 중심으로 증권 및 보험사 등 은행업을 제외한 금융업종 전반에 걸쳐 사업영역이 다각화 되어 있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업이 그룹 합산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60% 수준이며 매출액 기준으로는 70%를 상회하고 있다. 현대제철이 중심이 되는 철강업의 경우 계열 완성차업체가 주 수요처이고, 현대캐피탈을 중심으로 한 할부리스업은 자동차 할부금융 및 오토리스 등 자동차금융을 주력으로 하고 있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의존도는 자산이나 매출에서 자동차∙자동차부품업체가 차지하는 비중 이상으로 절대적이며, 대표기업이자 최전방업체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영업실적에 계열 전체 실적이 전반적으로 연동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계열기업 간 사업적 연계도가 높아 자동차부문의 사업환경 변화 및 실적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규제이슈와 관련된 평판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짐.

**브랜드 이미지 및 가치**

**‘모던 프리미엄’**은 이 시대의 고객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여 고객들이 자부심과 감동을 느끼도록 하겠다는 현대차의 의지이자 약속. 소수만이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모든 고객들이 현대자동차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함께 누리는 ‘특별함’.

고객의 자동차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모던프리미엄이라는 가치아래 고객들이 직접 현대의 모던 프리미엄이 창조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자동차 브랜드 체험 공간을 마련. ‘자동차와 문화 실험실’을 컨셉으로 한 현대자동차의 다양한 문화적, 예술적 실험을 선보인다. = 현대 모터스튜디오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 양산 브랜드인 현대 기아, 고성능 N 브랜드(스포츠카)

**현대자동차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암울하다. 국내 시장에서는 수입차와 국내 완성차 업체의 협공으로 인하여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36%를 기록, 2015년에 비하여 3% 떨어졌다. 수입업체들은 국내 자동차 시장에 깊숙이 파고들었고,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수입한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차량으로 국내시장을 공략했기 때문이다.

해외의 경우도 좋지 않다. 미국은 트럼프의 자국 보호무역주의로 인하여 지난해 9월 설립한 멕시코 공장이 계륵에 처할 수 도 있는 상황. 중국시장에서도 중국 내 자동차 기업들 중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인데다가 끊임없는 리콜로 소비자 신뢰도에도 금이 가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앞으로의 전략**

단연 자동차 시장에서 화제인 자율주행과 커넥티드에 집중할 전략. 현대차는 차세대 혁신기술을 이용한 미래 먹거리 사업에만 집중하는 조직을 새로 만든다. = 전략기술연구소

전략기술연구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보통신과 인공지능, 신소재, 에너지, 로보틱스, 공유경제 등 미래 혁신 분야를 연구한다.

동시에 신사업 구체화 역할도 수행한다. 신사업은 미래 차, 융복합 기술을 포함해 미래 혁신 기술과 관련된 전 분야를 아우른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신사업 구상 진행, 기술 개발 전략 등을 담당하는 조직과 신소재 등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조직 등 크게 두 부문으로 구성.

전략기술연구소가 미래 산업과 관련된 연구기술을 개발한다면 중앙연구소는 원천기술에 중점을 두고 확보에 10년 이상 걸리는 기초 연구를 수행한다. 남양연구소는 곧 양산에 들어가거나 이미 양산 중인 차에 적용될 기술을 연구한다. 한마디로 남양연구소가 단기적, 중앙연구소가 장기적 기술, 전략기술연구소가 중장기적으로 ‘돈이 되는’ 기술을 연구해 구체적 사업 적용 방안까지 짜내는 것.

기술 개발과 사업화 추진 등 각종 프로젝트 실행은 아이템, 시장 환경에 따라 ‘오픈 이노베이션’방식이 적극 활용. ‘오픈 이노베이션’은 전문 기업체나 대학, 연구소들과 적극 협업에 나서는 형태로 첨단 신기술을 조기에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

**현대자동차 2017 목표**

글로벌 판매목표는 825만대로 2016년 연초 사업계획(813만대) 대비 약 1.5% 높은 수준. 신공장(멕시코 공장 증산 및 중국 4공장) 증설분 및 국내공장의 수출 가동률 회복 가능성이 반영된 계획.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시장 회복가능성은 2017년 기대요인.

정몽구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경쟁력 확보를 강조. 이를 위하여

1. R&D 투자확대를 통한 미래기술개발역량 강화
2. 브랜드가치 제고 / 제네시스 브랜드 조기 안착
3. 글로벌 생산/판매체계 효율적 운영
4. 협력사 동반성장 및 사회공헌활동

을 강조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차**

CES2017에서 ‘Freedom in Mobility(이동의 자유로움)’라는 방향성 하에 아이오닉 일렉트릭 기반의 자율주행차를 선보임.

기술적 완성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음.

ADAS(Advanced Driver Assistant System)

현대자동차의 ADAS 기술은 크게 인지, 판단, 제어로 구분.  
인지는 센서나 카메라를 통해 환경을 인식하는 것으로 사람의 눈에 해당.  
판단은 컨트롤러를 통해 신호를 처리하거나 주변 상황에 따라 차량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두뇌.  
제어는 가감속이나 조향제어 등 직접적인 움직임을 담당하며, 인간의 혈관이나 근육, 신경계에 해당.

1. 차선 유지 지원 시스템 (LKAS, Lane Keeping Assist System)  
   윈드실드 글라스에 장착된 카메라로 앞 차선을 인식한 후 방향 지시등 없이 차선을 이탈할 경우 스스로 경로를 바로 잡음.
2.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AEB, Autonomous Emergency Braking System)  
   급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타이밍을 놓쳤을 경우 가동.  
   차간 간격과 주행 속도에 따른 충돌 상황을 예측하고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추돌을 방지.
3. 샤시 통합 제어 시스템 (VSM, Vehicle Stability Management System)  
   눈, 비로 미끄러운 도로나 빙판과 아스팔트가 섞인 비대칭 길, 각도가 심하게 휜 고선 길 등에서 제동할 때 차량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안전하게 자세를 유지.
4. 스마트 후측방 경보 시스템 (BSD, Blind Spot Detection)  
   뒷범퍼의 레이더 센서를 통해 차량의 후측방 시야 사각지대 장애물이나 빠르게 접근하는 차량을 운전자에게 알려줌.
5.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 (SPAS, Smart Parking Assist System)  
   주차 시 차량 외부 센서가 주변 장애물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스티어링 휠을 조작.
6. 경사로 밀림 방지 시스템 (HAC, Hill Start Assist Control System)  
   오르막길에 정차했던 차가 다시 출발할 때 후방으로 밀리지 않도록 약 3초동안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작동.
7. 전방 추돌 경보 시스템 (FCWS,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  
   전방감지카메라를 통해 차선과 선행 차량을 인식하고, 추돌이 예상될 때는 경보음과 스티어링 휠 진동으로 운전자에게 경고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
8.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ASCC, Advanced Smart Cruise Contorl)  
   상습 정체구간이나 혼잡한 도심에서 운전자가 페달과 브레이크를 번갈아 밟지 않아도 레이더 센서를 통해 앞 차량과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 차간거리의 자동 조절은 물론, 재출발 후 설정한 속도까지 가속되는 기능.

현대 기아차는 투싼ix FCEV, 쏘울 EV, 아이오닉 3개 모델에서 자유주행 기술을 선보임. 외관이 양산형 차량과 가장 비슷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 강점.  
현대차는 서울 모터쇼에서 아이오닉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커넥티드 서비스도 선보임. 아이오닉 자율주행차는 KT와 협력해서 커넥티드 서비스도 개발 중.  
음석인식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홈투카’ 서비스를 2018년 상용화하고 자동차에서 집안 전자제품을 제어하는 ‘카투홈’ 서비스는 2019년부터 제공.